

# 대구지역 대학생의 신체자각증상 호소율

신두만\* · 남철현\*\*

\* 대구보건대학 임상병리과 · \*\* 경산대학교 보건학부

## 〈목 차〉

I. 서론	IV. 요약 및 결론
II. 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II. 성적 및 고찰	Abstract

## I. 서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갈망해온 가장 절실한 욕구 중의 하나이다(박종기, 1977).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건강한 인격의 양성을 도모하는 기관인 학교에서는 더욱 보건의 중요시되고 있다.

오늘날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학교환경에서의 생활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학교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은 학교수행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장영미, 2000).

사회심리적 환경과 신체적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압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감,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정서적 긴장 등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체의 생리적, 심리적 및 행동의 반응특징이 수반되며(Roth 등, 1989).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정도가 심하거나 빈도가 높을 때 다양한 질병 발생과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Friedman 등, 1987).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과 건강한 경험은 학생들의 지적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녔으며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또한 다르다. 입시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무리하게 바쁜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생활의 리듬이 파괴되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이

정애와 이해숙, 1998).

대학시절은 음주와 흡연, 성적접촉 등 건강관련 행위가 빈번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공기, 소음, 음주, 흡연, 약물, 유해식품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협요소(health challenges)를 극소화하고 영양상태, 면역상태, 스트레스 관리능력과 같은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건강잠재력(health potential)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반덕진, 1999).

대학생시절의 생활양식(life style)과 건강행태(health behavior)는 그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시기는 평생 자기건강 관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교육적 효과가 크다. 고교시절까지는 자신의 건강관리 역시 부모나 주변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학시절부터는 자기생활에 주체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자신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강화된다.

이처럼 삶의 과정에서 홀로서기의 시작이 되는 대학시절의 건강행위는 청년기 이후의 건강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건강관련 행위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교육이 제공된다면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이원재와 반덕진, 1999).

따라서 대학생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도와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건강위험속에 노출된 대학생들의 보다 적절한 건강계획을 위해서는 건강행위와 건강요구와의 규명이 필요하며 신체각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된다.

## II. 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대구지역 소재 3개 전문대학 1·2·3학년 학생 9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7일부터 6월7일까지 였다.

### 2. 조사방법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확정하였으며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자기 기술식에 의해 무기명으로 기입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조사대상 950명 가운데 회수된 응답자는 808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5%였다. 이중 기재가 불성실하거나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5명을 제외하고 7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분석

설문지 구성은 신체 증상에 관한 문항은 The Cornell Medical Index(C.M.I)(Brodman 등, 1949)와 Todai Health Index(T.H.I)(김윤신과 김정만, 1979)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38문항을 선택하였고 불안반응은 1974년 Zung이 개발한 The Self-Rating Anxiety Scale(S.A.S)(Zung, 1974)의 20문항 등 총 58문항을 선정하였다.

$\chi^2$ -test 신체증상에 관한 문항은 “항상 그렇다”(주 3회 이상), “자주 그렇다”(주 1~2회정도) 응답한자 중 20%이상이 호소한 문항을 일반특

성에 따라 분석처리 하였으며, 불안반응은 Zung (1974)의 S.A.S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항상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80점 만점에서 50점 이상은 불안상태, 30점에서 49점을 중간상태, 30점 미만을 안정상태 구분하였으며 신체 및 불안반응 문항 등을 분석하여  $\chi^2$ -test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 Ⅲ. 성적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793명중 남자가 26.5%인 210명, 여자는 73.5%인 583명이었으며, 1학년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이 21.2%, 3학년이 19.2% 순이었다(표 1).

출신고는 인문계 70.5%로 가장 높았고, 공업계 5.6%, 상업계 22.8% 순이었으며, 전공은 보건계 76.9%, 공업계 13.6%, 사회실무계가 9.5%였다.

수업시간은 주간에 수업이 64.1%로 가장 높았고, 야간수업이 35.3%, 주·야수업이 0.6%였으며, 종교별로 보면 불교 26.0%, 기독교 19.5%, 천주교 9.3%의 순이었으며 무교가 42.8%로 가장 높았고 성장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22.2%, 농·어촌 21.8% 순이었고, 가족사항으로 보면 부모 모두 있는 학생은 89.0%였고, 부모 모두 없음이 8명으로 1.0%였다.

형제는 2~3명이 78.7%로 가장 높았고, 4명이상이 18.1%, 외동이 3.2%였으며, 주거상태별로 보면 자가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자취 25.5%, 하숙 2.0%, 기타가 8.3%였다. 통학교통수단별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학생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도보 27.1%, 자가용 통학 학생도 6.8%였으며, 교육비 부담은 부담하지 않는 학생이 48.7%, 전적부담이 38.8%, 부분부담이 12.5%였다.

학과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20.4%, 보통 64.5%, 불만이 15.1%였다.

#### 2. 신체증상별 자각 호소율

신체증상과 관련된 38문항중 대상자의 20%이상이 자주(주 1~2회 정도) 또는 항상(주 3회 이상)느끼는 신체증상은 10개문항이었고, 그중 “눈이 피로하다”가 51.4%로 가장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표 2).

이는 신두만(1993) 등이 보고한 섬유산업체 근로자들의 “눈이 피로하다”는 호소율 44.0%와 신(1999)이 보고한 대구지역 택시운전자들의 “눈이 피로하다”는 호소율 46.5%보다 높았다. 이는 섬유산업체 근로자와 택시운전자보다 학생들이 학습과 독서 그리고 컴퓨터사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눈의 피로호소율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눈이 피로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 “어깨가 아프다”,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눈이 쓰리고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는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p < 0.01$ ).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에서도 여자가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p < 0.05$ ).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에서는 남녀간 유의성은 없었다. 10개문항 중에서 여자대상자가 높은 호소율을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남 자		여 자		계	
		NO	%	NO	%	NO	%
학 년	1학년	132	62.9	341	58.5	473	59.6
	2학년	49	23.3	119	20.4	168	21.2
	3학년	29	13.8	123	21.1	152	19.2
출신고	인문계	144	68.6	415	71.2	559	70.5
	공업계	41	19.5	3	0.5	44	5.6
	상업계	23	10.9	158	27.1	181	22.8
	기타	2	1.0	7	1.2	9	1.1
전 공	보건계	129	61.4	481	82.5	610	76.9
	공업계	46	21.9	62	10.6	108	13.6
	사회실무계	35	16.7	40	6.9	75	9.5
수업시간	주간수업	128	61.0	380	65.2	508	64.1
	야간수업	79	37.6	201	34.5	280	35.3
	주·야수업	3	1.4	2	0.3	5	0.6
종 교	불교	50	23.8	156	26.8	206	26.0
	기독교	46	21.9	109	18.7	155	19.5
	천주교	18	8.6	56	9.6	74	9.3
	기타	7	3.3	12	2.1	19	2.4
	무교	89	42.4	250	42.9	339	42.8
성장지역	대도시	122	58.1	322	55.2	444	56.0
	중·소도시	53	25.2	123	21.1	176	22.2
	농·어촌	35	16.7	138	23.7	173	21.8
부·모	부·모	181	86.2	525	90.1	706	89.0
	부	10	4.8	9	1.5	19	2.4
	모	17	8.1	43	7.4	60	7.6
	없음	2	1.0	6	1.0	8	1.0
형 계	외동	15	7.1	10	1.7	25	3.2
	2~3명	168	80.0	456	78.2	624	78.7
	4명 이상	27	12.9	117	20.1	144	18.1
주거상태	자가	134	63.8	375	64.3	509	64.2
	자취	40	19.1	162	27.8	202	25.5
	하숙	3	1.4	13	2.2	16	2.0
	기타	33	15.7	33	5.7	66	8.3
통학교통수단	대중교통	119	56.7	405	69.5	524	66.1
	자가용	31	14.8	23	4.0	54	6.8
	도보	60	28.6	155	26.6	215	27.1
교육비부담	전적부담	81	38.6	227	38.9	308	38.8
	부분부담	34	16.2	65	65.7	99	12.5
	부담안함	95	45.2	291	49.9	386	48.7
학과만족도	만족	60	28.6	102	17.5	162	20.4
	보통	120	57.1	391	67.1	511	64.5
	불만	30	14.3	90	15.4	120	15.1

보였는데,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체격이 떨어지며 지방조직이 많은 반면 근육의 발달이 불량한 관계로 남자 대상자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조규상, 1984). 이는 건강관리 계획수립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 3. 학년별 신체증상 호소율

학년별 신체증상 호소율은 <표 3>과 같이 10개문항중 “눈이 피로하다” 증상에서 1학년 49.0%, 2학년 54.1%, 3학년 5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증상은 1학년 24.9%, 2학년 29.7%, 3학년

<표 2> 성별 신체증상 호소율

순위 <sup>a</sup>	신 체 증 상	남 자		여 자		계		$\chi^2$
		NO	%	NO	%	NO	%	
1	눈이 피로하다	90	42.8	318	54.5	408	51.4	23.9836**
2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42	20.0	237	40.6	279	35.1	65.2307**
3	어깨가 아프다	30	14.2	208	35.6	238	30.0	63.0332**
4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34	16.1	188	32.2	222	27.9	32.2091**
5	눈이 쓰리고 아프다	43	20.4	139	23.8	182	22.9	11.5408**
6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33	15.7	129	22.1	162	20.4	25.2993**
7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2	10.4	138	23.6	160	20.1	39.3380**
8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44	20.9	100	17.1	144	18.1	3.0881
9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5	7.1	124	21.2	139	17.5	56.2610*
10	다리가 저리다	17	8.1	119	20.4	136	17.1	39.0003**

<sup>a</sup> 신체증상별 순위는 대상자의 20%이상이 자주 또는 항상 느끼는 증상 중 호소율이 높은 순위임.

\* p<0.05, \*\* p<0.01

<표 3> 학년별 신체증상 호소율

단위: %

신 체 증 상	1학년 (N=473)	2학년 (N=168)	3학년 (N=152)	계 (N=793)	$\chi^2$
눈이 피로하다.	49.0	54.1	55.9	51.4	10.1405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4.6	38.6	32.8	35.1	3.1818
어깨가 아프다	29.3	30.3	31.5	30.0	1.9524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24.9	29.7	35.5	27.9	14.5445*
눈이 쓰리고 아프다	22.2	24.4	23.6	22.9	4.3969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17.5	26.7	22.3	20.4	10.0811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18.6	20.8	24.3	20.1	8.5011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6.9	22.0	17.7	18.1	7.3737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4.3	23.2	21.0	17.5	9.9803
다리가 저리다	16.9	20.2	14.4	17.1	4.6913

\* p<0.05

35.5%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05$ ) (표 3).

#### 4. 전공별 신체증상 호소율

“어깨가 아프다”는 신체증상 호소율은 보건계 30.9%, 공업계 30.53%, 사회실무계 21.3%로 보건계가 높았고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는 보건계가 30.00%로 가장 높았으며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는 공업계가 23.1%로 다른 계열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01$ )(표 4).

“눈이 피로하다”는 공업계가 52.7%로 가장 높았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는 보건계가 36.5%로 공업계 33.3%, 사회실무계 26.6%보다 높았으며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는 보건계가 21.8%로 공업계, 사회실무계보다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05$ ).

나머지 문항중 “눈이 쓰리고 아프다”,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는 공업계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다”, “다리가 저리다”는 보건계가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 5. 수업시간별 신체증상 호소율

수업시간별 신체 증상호소율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에서 주간에 수업자가 36.6%로 가장 높았고 야간 수업자가 32.8%, 주·야 수업자가 20.0%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표 5).

그외 주간 수업자에서 높았으나 호소율을 보아 증상은 “눈이 쓰리고 아프다”였으며 야간 수업자는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다”, “다리가 저리다”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주간수업자들의 호소율은 야간, 주·야 수업자에 비해 호소율이 낮았으며 이는 채창락(1986)에서 보고된 주간 근무자의 호소율이 주·야 근무자의 호소율보다 높았다고 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신등(1993)이 보고한 주간근

<표 4> 전공별 신체증상 호소율

단위: %

신 체 증 상	보 건 계 (N=610)	공 업 계 (N=108)	사회실무계 (N=75)	계 (N=793)	$\chi^2$
눈이 피로하다	52.1	52.7	44.0	51.4	13.9280*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6.5	33.3	26.6	35.1	14.4748*
어깨가 아프다	30.9	30.5	21.3	30.0	22.5783**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30.0	29.6	9.3	27.9	20.3272**
눈이 쓰리고 아프다	21.8	28.7	24.0	22.9	5.0562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0.3	23.1	17.3	20.4	29.3565**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1.8	16.6	12.0	20.1	13.6300*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6.3	27.7	18.6	18.1	12.5135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8.5	15.7	12.0	17.5	8.7019
다리가 저리다	18.6	14.8	8.0	17.1	9.0814

\*  $p < 0.05$ , \*\*  $p < 0.01$

<표 5> 수업시간별 신체증상 호소율

신 체 증 상	단위: %				
	주 간 (N=508)	야 간 (N=280)	주·야간 (N=5)	계 (N=793)	$\chi^2$
눈이 피로하다	51.3	51.4	60.0	51.4	6.9988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6.6	32.8	20.0	35.1	13.5297*
어깨가 아프다	28.3	32.8	40.0	30.0	3.5887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25.3	33.2	0.0	27.9	11.9906
눈이 쓰리고 아프다	23.8	21.7	0.0	22.9	7.0180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18.7	23.5	20.0	20.4	10.0227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18.5	23.2	20.0	20.1	6.5539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8.9	16.7	20.0	18.1	7.4453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5.7	20.7	20.0	17.5	7.3071
다리가 저리다	14.5	22.1	0.0	17.1	10.6417

\* p<0.05

무자의 호소율이 낮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6).

그 외 중·소도시에서 성장한자가 높게 호소한 증상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가 38.0%,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가 35.2%, “눈이 쓰리고 아프다”가 25.0%,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가 22.7%,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가 22.7%,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다”가

## 6. 성장지역별 신체증상 호소율

중·소도시 지역에서 성장한자가 높은 증상호소율을 보인 문항은 “어깨가 아프다” 38.0%,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2.7%였으며 이들은 통

<표 6> 성장지역별 신체증상 호소율

신 체 증 상	단위: %				
	대도시 (N=444)	중·소도시 (N=176)	농·어촌 (N=173)	계 (N=793)	$\chi^2$
눈이 피로하다	52.9	51.7	47.4	51.4	6.9618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4.9	38.0	32.9	35.1	2.3114
어깨가 아프다	28.3	38.0	26.0	30.0	13.5840*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25.2	35.2	27.7	27.9	10.7250
눈이 쓰리고 아프다	23.4	25.0	19.6	22.9	7.4334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19.8	22.7	19.6	20.4	16.1275*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0.5	21.0	18.5	20.1	7.2690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5.9	22.7	19.0	18.1	10.6629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6.8	20.4	16.1	17.5	8.5375
다리가 저리다	17.7	18.7	13.8	17.1	5.5722

\* p<0.05

20.4%, “다리가 저리다”가 18.7%였고 대도시에서 성장한자에서 “눈이 피로하다”가 52.9%,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가 20.5%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성장한자가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성장한자에 비해 10개 문항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오염되지 않은 농·어촌 환경 등이 성장기 발육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7. 가족관계(부·모)별 신체증상 호소율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는 신체증상 호소율은 부·모19.9%, 부 5.7%, 모 20.0%, 부모없음 50.0%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표 7).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라는 증상은 부·모 없음이 50.0%로 부·모 35.4%, 모 35.0%, 부 21.0% 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5).

그외 문항중 “눈이 피로하다” 61.6%, “어깨가

아프다” 35.0%,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31.6%로 모만있는군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부모 모두 없는 자는 “눈이 쓰리고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다”는 호소율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모두 있는 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와 모두가 없는자에 비해 호소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비 등 많은 부분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양부모가 있는 경우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신두만 등(1993).이 보고한 결혼한 근로자가 미혼, 독신군 보다 낮은 신체증상 호소율을 보였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8. 주거상태별 신체증상 호소율

주거상태별 신체증상 호소율에서는 자가에서 생활하는 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취 자는

<표 7> 가족관계(부모)별 신체증상 호소율

신 체 증 상	부·모 (N=706)	부 (N=19)	모 (N=60)	없음 (N=8)	계 (N=793)	단위: %
						$\chi^2$
눈이 피로하다	50.7	47.3	61.6	50.0	51.4	7.7412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5.4	21.0	35.0	50.0	35.1	17.2262*
어깨가 아프다	30.1	10.5	35.0	25.0	30.0	9.3267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28.1	10.5	31.6	25.0	27.9	6.6163
눈이 쓰리고 아프다	22.6	21.0	25.0	37.5	22.9	4.4202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0.1	10.5	25.0	37.5	20.4	14.9121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19.9	15.7	20.0	50.0	20.1	28.0251**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2.5	5.2	16.6	18.7	18.1	4.8084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7.2	10.5	20.0	37.5	17.5	15.4157
다리가 저리다	17.0	15.7	20.0	12.5	17.1	7.926

\* p<0.05, \*\* p<0.01



<표 8> 주거상태별 신체증상 호소율

신 체 증 상	단위: %					$\chi^2$
	자 가 (N=509)	자 취 (N=202)	하 숙 (N=16)	기타 (N=66)	계 (N=793)	
눈이 피로하다	53.4	45.5	43.7	56.0	51.4	5.8547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5.9	35.6	37.5	27.2	35.1	9.6143
어깨가 아프다	30.2	28.2	18.7	36.3	30.0	10.5653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27.3	31.1	31.2	22.7	27.9	5.7464
눈이 쓰리고 아프다	24.1	18.8	25.0	25.7	22.9	7.4576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0.4	18.8	12.5	27.2	20.4	16.5716**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0.6	18.8	6.2	24.2	20.1	5.0121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6.1	20.7	25.0	24.2	18.1	15.9360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6.7	19.8	6.2	19.7	17.5	11.8652
다리가 저리다	17.6	14.8	18.7	19.7	17.1	9.8507

\*\* p<0.01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다”가 19.8%로 자가 16.7%, 하숙 6.2%, 기타 19.7%보다 높게 호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기타 군에서는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는 증상은 27.2%로 자가 20.4%, 자취 18.8%, 하숙 12.5%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8). 그 외 항목중 기타 군은 “눈이 피로하다”, “어깨가 아프다”, “눈이 쓰리고 아프다”,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는 증상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기타 군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인 것은 도서관 등에서 생활하는 자가 타군에 비해 높은 증상 호소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신 등(1993)이 보고한 자취자가 자가, 기숙사 생활자보다 높게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 9. 통학교통 수단별 신체증상 호소율

통학 교통수단별 신체증상호소율은 대중교통

이용자에서 “눈이 피로하다” 52.2%,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 36.0%, “어깨가 아프다” 31.1%, “눈이 쓰리고 아프다” 25.0%,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1.7%로 높았으며, 도보로 통학하는자에서는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29.3%,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0.9%,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23.7%,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다” 19.0%, “다리가 저리다”는 16.7%로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통학교통수단별 신체증상호소에서 “어깨가 아프다”(p<0.01)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p<0.05)는 유의성이 있었다(표 9).

### 10. 교육비 부담별 신체증상 호소율

교육비 부담별 신체 증상호소율은 전적부담군이 부분부담과 부담안하는 군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인 문항은 10개 문항중 “눈이 피로하다” 53.5%,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5.2% 증상이 외 8개 문항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눈이

쓰리고 아프다” 26.9%는 증상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표 10).

교육비 부담군이 부담안하는군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인 것은 김태덕(1987)에서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군이 부담안하는군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인것과 동일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교육비를 본인이 직접 마련한

다는 것은 현재 사회 여건상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인해 신체적 증상호소율도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11. 학과만족도별 신체증상 호소율

학과에 불만족군이 보인 증상중 “계단을 오르

<표 9> 통학교통 수단별 신체증상 호소율

신 체 증 상	대중교통 (N=524)	자가용 (N=54)	도 보 (N=215)	계 (N=793)	단위: %
					$\chi^2$
눈이 피로하다	52.2	51.8	49.3	51.4	8.4049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6.0	27.7	34.8	35.1	15.0298*
어깨가 아프다	31.1	18.5	30.2	30.0	19.1645**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28.2	20.3	29.3	27.9	4.6460
눈이 쓰리고 아프다	25.0	22.2	18.1	22.9	11.3929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0.0	22.2	20.9	20.4	7.7639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1.7	12.9	18.1	20.1	8.6188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6.6	11.1	23.7	18.1	11.6776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8.3	3.7	19.0	17.5	11.0266
다리가 저리다	18.1	9.2	16.7	17.1	9.9490

\*  $p < 0.05$ , \*\*  $p < 0.01$

<표 10> 교육비 부담별 신체증상 호소율

신 체 증 상	전적부담 (N=308)	부분부담 (N=99)	부담안함 (N=386)	계 (N=793)	단위: %
					$\chi^2$
눈이 피로하다	51.6	53.5	50.7	51.4	6.0908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39.2	26.2	34.2	35.1	9.1400
어깨가 아프다	31.4	27.2	29.5	30.0	10.2887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30.1	23.2	27.4	27.9	3.8092
눈이 쓰리고 아프다	26.9	15.1	21.7	22.9	13.1437*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20.1	25.2	19.4	20.4	5.2971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2.7	16.1	19.1	20.1	8.4676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8.5	17.1	18.1	18.1	4.4211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20.1	14.1	16.3	17.5	8.4789
다리가 저리다	16.8	9.0	19.4	17.1	7.7490

\*  $p < 0.05$

<표 11> 학과만족도별 신체증상 호소율

신 체 증 상	단위: %				
	만 족 (N=162)	보 통 (N=511)	불만족 (N=120)	계 (N=793)	$\chi^2$
눈이 피로하다	52.4	50.1	55.8	51.4	7.3216
계단을 오르내릴때 숨이 차다	23.4	36.4	45.8	35.1	36.9327**
어깨가 아프다	27.1	29.1	37.5	30.0	13.2067*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19.7	28.1	38.3	27.9	16.4809*
눈이 쓰리고 아프다	17.9	22.3	32.5	22.9	9.9927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17.2	18.9	30.8	20.4	21.0945**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16.6	20.1	25.0	20.1	9.9777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16.0	17.4	24.1	18.1	19.5490*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있다	14.8	18.4	17.5	17.5	7.2763
다리가 저리다	13.5	17.4	20.8	17.1	14.4365*

\* p<0.05, \*\* p<0.01

내릴 때 숨이 차다” 55.8%,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 30.8%로 다른군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표 11).

“어깨가 아프다” 37.5%, “공복시에 속이 쓰리다” 38.3%,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 24.1%, “다리가 저리다” 20.8%는 증상 역시 불만족군이 높았다(p<0.05).

그외 증상중 “눈이 피로하다” 55.8%, “눈이 쓰리고 아프다” 32.5%,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25.0%는 불만족군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다” 17.5%는 보통군이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없었다.

재학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 불만족인 학생은 만족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전 항목에서 신체증상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 진학 시 적성에 맞는 학과선택이 학교생활과 개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2. 일반특성별 불안반응

일반특성별 불안반응은 전체대상자중 4.4%가

불안상태에 있었고 73.2%가 중간상태, 22.3%가 안정상태에 있었다(표 12).

학년별로는 1학년 3.5%, 2학년 5.9%, 3학년 5.2% 불안반응을 보였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5).

전공별로는 공업계가 6.4%로 보건계 4.2%, 사회실무계 2.6%순이었으며 수업시간별로는 야간수업자가 5.7%로 가장 높은 불안반응을 보였다.

성장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성장자가 7.3%, 농·어촌 5.7%, 대도시가 2.7%로 순위였고 가족사항으로는 부모 없는 자가 12.5%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상태별로는 기타가 9.0%였으며 학비부담별에서는 전적부담자가 5.8%로 부담안하는군 3.6%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이는 김태덕(1987)이 보고한 생활비 부담군이 부담안하는군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인 것과 일치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통학별 불안반응은 도보 6.0%, 자가용 3.8%, 대중교통 3.7% 순이었고(P<0.01), 학과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이 8.3%, 보통이 3.9%, 만족이 3.0% 순이었으며 유성이 있었다(p<0.05).

<표 12> 일반특성별 불안반응

특 성	대상자수	불안반응(%)			$\chi^2$	
		불안반응	중간상태	안정상태		
학 년	1학년	473	3.5	75.6	20.7	12.4714*
	2학년	168	5.9	63.1	30.9	
	3학년	152	5.2	76.9	17.7	
전 공	보건계	610	4.2	75.5	20.1	9.1218
	공업계	108	6.4	64.8	28.7	
	사회실무계	75	2.6	66.6	30.6	
수업시간	주간수업	508	3.7	74.6	21.6	3.1463
	야간수업	280	5.7	71.0	23.2	
	주·야수업	5	0.0	60.0	40.0	
성장지역	대도시	444	2.7	74.7	22.5	8.3788
	중·소도시	176	7.3	72.7	19.8	
	농·어촌	173	5.7	69.9	24.2	
가족사항(부·모)	부·모	706	4.2	72.6	23.0	6.8961
	부	19	0.0	73.6	26.3	
	모	60	6.6	81.6	11.6	
	없음	8	12.5	62.5	25.0	
주거상태	자가	509	3.5	74.0	22.4	7.8838
	자취	202	4.9	74.2	20.7	
	하숙	16	6.2	81.2	12.5	
	기타	66	9.0	62.1	28.7	
통 학	자가용	524	3.8	75.7	20.4	13.6770**
	대중교통	54	3.7	55.5	40.7	
	도보	215	6.0	71.6	22.3	
학비부담	전적부담	308	5.8	73.3	20.7	4.6647
	부분부담	99	3.0	68.6	28.2	
	부담안함	386	3.6	74.3	22.0	
학과만족도	만족	162	3.0	67.2	29.6	11.3092*
	보통	511	3.9	75.7	20.3	
	불만	120	8.3	70.8	20.8	

\* p<0.05, \*\* p<0.01

#### IV. 요약 및 결론

대학생들의 신체 자각 증상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생지도 및 학교보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2001년 5월 7일부터 6월7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대구지역에 재학중인 전문대학 학생 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남자가 26.5% 여자가 73.5%였고 출신교구는 인문계 70.5%, 전공은 보건계 76.9%, 수업시간은 주간수업이 64.1%, 종교는 무교가 42.8%로 가장 많았다.

성장지역은 대도시 56.0% 중·소도시 22.2%, 농·어촌 21.8%였고 통학수단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는 66.1%, 교육비부담은 부담안하는자 48.7%, 학과 만족도에서는 보통이 64.5%로 가장 높았다.

2. 신체증상 호소는 “눈이 피로하다”가 51.4%로 가장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3. 전공별 신체증상호소율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 “어깨가 아프다”, “공복 시에 속이 쓰리다”,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가 보건계 군에서 가장 높은 호소율을 보였으며 “눈이 피로하다”, “머리가 무겁다고 느낀다”는 공업계가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4. 통학교육수단별 신체증상호소율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 “어깨가 아프다”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52.2%와 36.0%로 가장 높았다.
5. 대학생들의 불안 반응에서는 통학 교통수단별 불안반응분포에서 자가용 3.8%, 대중교통 3.7% 순이었으며 학과만족별 불안반응에서는 불만이 8.3%, 보통이 3.9%, 만족이 3.0%로 불만자군이 높은 불안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특히 높게 호소한 신체증상으로 눈의 피로, 어깨통증, 무릎통증, 머리가 무겁다 등을 고려한 학습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학교당국, 관련전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설정하여 전문교사(보건교사, 보건교육사)가 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덕. 전자산업체근로여성의 신체자각 증상호소율, 석사행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7.

김윤신, 김정만. 질문지건강조사표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산업의학, 1979; 18(1): 18-24.

박종기. 한국의 보건문제와 대책(II). 한국개발연구원, 1977.

반덕진. 현대인의 건강관리, 신평출판사, 1999; 21-22.

신두만, 조수열, 남철현. 섬유산업체근로자의 신체자각증상호소율, 한국환경위생학회지 1993; 19(4).

신두만. 대구지역 Taxi 운전자의 신체자각증상호소율. 대한위생학회지 1999; 14(4).

이정애, 이혜숙. 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8; 15(2).

이원재, 반덕진. 일부대학생들의 건강관련행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9; 16(2).

조규상. 산업보건학, 수문사, 1984.

장영미.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환경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의 관련요인 분석.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0; 17(2).

채창락. 코오넬 의학지수에 의한 전자교환원의 심신건강평가,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보건대학원, 1986.

Brodman, K., Erdmann, A. J. Jr., Large, I., and Walf, H. G. : The Cornell Medical Index, An Adjust to Medical Interview. J. Amer. Med. ASS. 1949; 140(6): 530-534.

Friedman, H. S., Booth-kewley, s.: the disease-prone personality : A meta-analytic view of the construct, American psychologist. 1987; 42: 539-555.

Roth, D. L., wiebe, D. J., Fillingim, R. B., shay, K. A.: Life events, fitness, havdiness, and health: A simultaneous Analysis of proposed stress-resistance effect. 1989; 57: 136-142.

Zung, W. W. K. : A Rac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 Psychosomatics. 1974; 12: 371-379.

<ABSTRACT>

## The Complaining Rate of Physical Self-Consciousness Symptoms for College Students in Taegu, Korea

Du-Man Shin\* · Chul-Hyun Nam\*\*

\*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Taegu Health Collage*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san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physical awareness symptoms of college students and get fundamental research data essential to provide efficient student guidance and public health service at schools.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1 month from May 7th, 2001 to June 7th, 2001. The interviewees were 950 enrolled students at junior colleges in Daegu. 26.5% of them were men and 73.5% women. Among the surveyed, public health majors were 76.9%. Daytime students were 64.1%, and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42.8%, were atheistic. 56.0% of the students grew up in big cities, 22.2% in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and 21.8%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66.1% used public transportation.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48.7%, answere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ir majors was average.

The result shows that the ocular fatigue was indicated as a greatest complaint, and the female students showed the higher complaint rate than the males. In the study of the complaining rate of physical symptoms by major, the public health majors showed the highest complaining rate in gasping when going up/down stairs, shoulder pain, a burning feeling on empty stomach, and leg/knee pain. On the other hand, the highest complaint factors for the technical majors were ocular fatigue and the feelings of heavy head. In the study of the complaining rate of physical symptoms by transportation, gasping during going up/down stairs and shoulder pain were most common, which were 52.2% and 36.0% respectively. In the study of the insecurity response distribution by transportation, college students who drive a car showed 3.8% and students using public transportation 3.7%. In the study of the insecurity response by subject satisfaction, students who answered dissatisfactory were 8.3%, average 3.9%, satisfied 3.0%.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subjects showed the higher rate of insecurity response. it can be recommended that a school health education program regarding ocular fatigue and shoulder pain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physical self-consciousness symptoms, college students